

# TRANS- HUMANITIES

---

**Title :** 일제말기 일본어문학의 재정립과 임순득의 (재)발견, 그리고 또  
다시보기: 「대모」(名付親, 1942)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Japanese as Depicted in the Literature of  
Joseon Korean in the Last Period of Japanese Imperialism:  
Im Sun-Deuk and “A Godmother” (“Nazukeoya,” 1942)**

Author(s) : 함충범, 최가형 (HAM Chung Beom • CHOI Ga Hyung)

Source : *Trans-Humanities*, Vol. 6 No. 2 (2013), pp. 115–146

Published by : Ewha Womans University Press

URL : <http://eiheng.ewha.ac.kr/page.asp?pageid=book10&pagenum=060600>

Online ISSN : 2383-9899

---

All articles in *Trans-Humanities* are linked to the Homepage of KCI and  
Ewha Institute for the Humanities and can be downloaded:

[www.kci.go.kr](http://www.kci.go.kr) & <http://www.trans-humanities.org/>



**이화여자대학교**  
EWHA WOMANS UNIVERSITY

# 일제말기 일본어문학의 재정립과 임순득의 (재)발견, 그리고 또 다시보기 - 「대모」(名付親, 1942)를 중심으로

함충범, 최가형

## 1. 서론

한국 근현대사에서 ‘일제말기’의 시간적 범위는 대개 중일전쟁 발발 (1937) 또는 그 전후의 식민지 환경의 변화 시기부터<sup>1)</sup> 1945년 8월 15일 해방 시점까지로 상정되어 있다. ‘전시체제 구축’과 ‘내선일체(內鮮一體) 강화’로 집약되는 일본의 식민지 정책 기조에 따라, 당시 한반도 내외의 조선인은 어떻게든 수탈, 협력, 저항, 회피 등의 태도나 행동을 취해야 하는 위치에 놓이게 되었다. 특히 ‘제국’의 영향권 하에 있던 사람

---

**함충범** 서울여자대학교 언론영상학부, **최가형** 고려대학교 대학원 중일어문학과 일본문학 전공

- 1) 일례로 최유리는 내선일체론과 전시동원체제가 본격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하는 1938년을 일제말기의 시작 시점으로 보고 있다. (최유리, 「일제 말기(1938년~45년) 「내선일체」론과 전시동원체제」, 박사논문. 이화여자대학교, 1995 참조.) 한편, 이들 사상과 체제를 정책적으로 공식화한 미나미지로(南次郎)가 제7대 조선총독으로 부임한 것은 1936년 8월의 일이었다.

www.kci.go.kr

들은 수탈과 협력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다. 이로 인해 많은 이들이 일제말기를 역사적 ‘암흑기’로 표현하기도 한다.

문학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전쟁이 장기화되고 조선에서 전시 동원 체제와 내선일체 정책이 정착되면서 문학계는 일대 변화에 직면한다. “내지인”과 조선인을 망라한<sup>2)</sup> 조선문인협회(1939. 10)의 창립”과 “반도 유일의 문학지로 군림하는 『국민문학』의 창간(1941. 11)”으로 “문학은 ‘국민문학’론에 근거하여 ‘국민화=황국신민화’를 위한 선전선동에 동원된다”(정선대 357). 그 결과 대다수 조선인 문학가의 작품이 일본어로 집필되는, 현재로 보면 ‘초유의 상황’이 발생한다.

그렇기에, 오랜 시간 동안 일제말기 한반도의 ‘일본어문학’은 그 자체로 국문학의 영역에서 배제되거나 지탄받아 왔다. 하지만 2000년대 이후 이에 대한 새로운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여러 작가와 작품들이 새롭게 조명되기도 하였다.

임순득 역시 하나의 예라 할 수 있는데, 드물게도 여류 작가이면서 해방 후에는 북한에서 활동을 한 이력이 눈에 띈다. 더욱이 “극심한 체제하에서도 … 그가 지니고 있던 사상과 정체성을 거침없이 작품에 담아내었다”(박경수, 김순전 334)는 점에서 주목된다. 실제로, 1942년 10월과 1943년에 2월 사이에 발표된 3편의 일본어 소설을 포함한 그의 모든 작품에서 이른바 ‘친일’의 내용과 의도를 찾아내기란 쉽지 않다. 특히 1942년 10월 『문화조선』(文化朝鮮)에 실린, 그의 최초의 일본어 소설 「대모」(名付親)는 “과시즘에 맞서는 임순득의 여성문학”(이상경, 『임순득, 대안적 여성 주체를 향하여』 174)의 전형으로 제시되곤 한다.

과연 어떠한 이유 때문일까. 특정 작가나 작품에 대한 평가가 당대 평균 정도의 작가나 작품의 그것과 극단적으로 대비된다는 점도 그러하

---

2) 박광현에 따르면, “가시 영역 밖의 두 문단(재조선 조선인 문단 및 일본인 문단)이 조선문인협회의 결성 이후에야 비로소 ‘첫 대면’을 하기 시작했다”(팔호-인용자)이며 이전까지는 “언어의 차이로 말미암은 이 둘의 간극”이 존재하였다(12).

거니와, 일본어로 쓰인 소설에서의 ‘저항’의 메시지가 얼마만큼 발산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이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는 텍스트-컨텍스트의 재검토를 통한 관련 연구에 대한 비판적 고찰이 요구될 것이다.

이에, 본고는 2000년대 이후 임순득에 대한 시선의 변화상이 동시기 식민지 일본어문학 전반에 대한 학계의 관심 및 재평가 양상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 그 과정에서 일본어 소설 「대모」에 어떠한 의미와 가치가 (덧)붙여지게 되는지, 아울러 그것이 번역의 과정을 거치며 어떠한 오류를 포함하는지 등에 대해 분석한다. 그럼으로써 기존 연구의 성과 및 한계를 진단하고 식민지 일본어문학이 지니는 특수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포착해보고자 한다.

## 2. 문학사적 인식의 전환과 임순득의 반복적 소환

일제말기 조선인이 쓴 일본어문학 작품에 대한 연구는 1990년대까지는 간헐적으로, 그것도 ‘친일문학’의 틀 안에서 이루어졌다. 임종국의 『친일문학론』(1966)과 송민호의 『일제 말 암흑기 문학 연구』(1989)가 대표적 저서라 할 수 있다. 이들 연구는 “당시 글쓰기를 오로지 제국 일본에 대한 추종인가 저항인가라는 이분법적 논리에서만 파악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 ‘암흑기’의 일본어 문학은 자연히 ‘친일문학’이라는 등식이 성립되었”다(식민지 일본어문학·문화연구회 편 62).

그러던 것이 “1990년대로 접어들면서 비로소 ‘근대문학=민족문학’이라는 등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시각에서 한국근대문학사를 바라보려는 노력이 나타났”고(김순전 외 8), 2000년대 이후 그 성과가 가시화되었다. 예를 들면, 김윤식은 『일제 말기 한국 작가의 일본어 글쓰기론』

(2003)에서, 노상래는 「일제 하 이중어문학의 연구 성과와 기대 효과」(2008)에서 일제말기 일본어문학에 대한 새로운 분류 및 객관적 평가를 역설하였다.

비슷한 시기, 임순득에 대한 연구 또한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초반까지는 일제말기 소설가로서의 활동에는 초점이 맞추어지지 않았다. 김재용은 「북한의 여성문학」(1997)에서 ‘해방 전후를 잇는’ 북한의 여성문학가로서, 서정자는 『한국 여성문학과 페미니즘』(2001)에서 ‘최초의 여성 문학평론가’로서 그를 다루었던 것이다.

임순득과 그의 작품이 국문학 연구의 영역 안으로 편입되는 과정도 순탄치만은 않았다. 이선옥의 「평등에의 유혹 ; 여성 지식인과 친일의 내적 논리」(2002)에서 「달밤의 대화」(月夜の語り)는 일본어로 쓰여지는 사실만으로, 그 주제 및 내용과는 무관하게 친일문학으로 분류되기도 하였다(김순전 외 334).

임순득에 대한 연구는 이상경에 의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는 「임순득론, 혹은 여성문학사의 재구성」(1999)을 시작으로 임순득 관련 연구를 시작하였으며, 「임순득의 소설 「대모」와 일제 말기의 여성문학」(2002)을 통해서 그의 일본어 소설을 논의의 중심으로 끌어들이었다. 이후 연구를 지속시켜 일련의 논문들을 모아<sup>3)</sup> 『임순득, 대안적 여성 주체를 향하여』(2009)라는 단행본을 내놓기도 하였다.

이와 관련 연구는 신경숙의 「1930년대 후반 여성작가들의 관점 연구

---

3) 자신의 저서 『임순득, 대안적 여성 주체를 향하여』(2009) 6쪽에서 이상경이 소개하는 기타 관련 연구는 다음과 같다. 「신여성론 다시 보기.여성운동기와 모던 걸 사이에서」. 『문학사상』31.1. 문학사상사, 2002; 「일제 말기의 여성동원과 ‘군국의 어머니」. 『페미니즘연구』2. 한국여성연구소, 2002; 「식민지에서의 여성과 민족의 문제」. 『실천문학』69. 실천문학사, 2003; 「1930년대의 신여성과 여성작가의 계보 연구」. 『여성문학연구』12. 한국여성문학학회, 2004; 「1930년대 후반 여성문학사의 재구성」. 『페미니즘연구』5. 한국여성연구소, 2005; 「1930년대 사회주의 여성에 관한 연구」. 『성평등연구』10. 기톨릭대 성평등연구소, 2006. 한편, 「1930년대의 신여성과 여성작가의 계보 연구」의 경우, 한국여성문학학회의 『한국 여성문학 연구의 현황과 전망』(2008)의 일부로도 포함되어 있다.

-임순득을 중심으로-(2004)를 통해 학위논문으로까지 이어졌다.

또한 최근에는 조선인에 의해 창작된 일본어 소설 연구의 일부로서 「대모」에 주목한 박경수와 김순전의 「『名付親』로 본 임순득의 ‘여성해방’론」<sup>4)</sup>(2010)이 발표되기도 하였다.

이처럼 2000년대 이후 임순득 관련 연구는, 이전의 논의가 전무하다시피 하였던 것에 비해 상당히 풍부해졌다. 특히 평론가가 아닌 소설가로서의 그의 입지가 자신의 일본어 소설이 새롭게 조명되고 평가됨과 동시에 강화되었다. 일본어로 발표된 「대모」, 「가을의 선물」(秋の贈り物) (『매일사진순보』(毎日寫眞旬報) 305호, 1942.12.1), 「달밤의 대화」(月夜の語り) (『춘추』(春秋), 1943.2) 등에서 특별한 ‘친일’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는 점, 그것이야말로 임순득이 국문학사에 새롭게 ‘등단’하는 근거가 되었던 것이다.

물론, 이는 “2000년을 전후로 하여 식민지 〈일본어 문학〉 연구가 〈친일문학〉 연구에서 〈이중어 문학〉 연구로 이행”한 국문학계에서의 전반적인 연구 방향의 변화와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 정병호는 이를 “민족의 정체성에 중점을 두던 연구경향에서 탈민족이라는 방향으로의 전환”으로 보고 있다(식민지 일본어문학·문화연구회 편 64). 이러한 측면에서 임순득과 그의 소설 작품의 발견은 일제말기 국문학 연구에 새로운 지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도 의의를 지남에 틀림없다.

하지만 실제로 임순득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는 여전히 “국민국가라는 정체성 혹은 민족의 정체성이라는 논리”를 토대로 하고 있다(식민지 일본어문학·문화연구회 편 64). 이는 임순득 소설의 ‘비협력’적 특징을 ‘저항’의 의미로 전도하며 그의 삶의 궤적을 더듬는 서술 방식을 통해 선협적으로 드러난다. 임순득의 일본어 소설에 대한 최초의 본격적인 연구라 할 수 있는 이상경의 「임순득의 소설 「대모(代母)」와 일제 말기

4) 이것은 이미 2009년 한국일본어문학회의 『일본어문학』41호에 「임순득, ‘창씨개명’과 「名付親」-‘이름짓기’에 의한 정체성 찾가-라는 논문으로 게재된 바 있었다.

의 여성문학」의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자.

논문 서두에서 이상경은 “우리 근대문학 최초의 여성평론가로서 임순득을 소개하고 그 의의를 밝힌 바 있다”(『임순득의 소설 「대모(代母)」와 일제 말기의 여성 문학」 332)면서도 ‘2. 지적 성장의 배경’ 부분을 두어 그의 개인사를 자세하게 설명한다. 여기서 중심을 이루는 부분은 바로 여성 반제국주의적 사회운동가로서의 임순득의 성장기이다. 이화여고보와 편입한 동덕여고보에서의 동맹휴학 운동, 독서회 활동, 검거와 퇴학의 과정이 강조되어 있다. 오빠 임택재, 동덕여고보 시절 은사 이관술 등 그에게 커다란 영향을 미친 인물들에 대한 소개도 빠지지 않는다.

이후의 논의가 ‘3. 임순득 문학의 출발점으로서의 「일요일」과 ‘4. 일본어 소설 「대모」의 문체성’으로 향하고 있음을, 그리고 논문의 제목을 상기해보자. 결국 임순득의 삶은 “창씨개명에 대한 비판”(이상경, 『임순득의 소설 「대모(代母)」와 일제 말기의 여성 문학」 357)이나 “민족의 해방과 여성의 해방”(361)이라는 「대모」에서 부각되는 주제의식과의 관련성을 연결시키는 차원에서 소환되고 있다.

보다 흥미로운 점은, 대표적인 관련 연구들에서 이러한 방식의 서술 패턴이 동일하게 발견된다는 사실이다. 신경숙은 “Ⅱ. 임순득의 생애와 문학의 배경”(신경숙 11)의 많은 부분을 이상경의 연구에서 인용하며 “비타협적 민족주의자 임순득”(30)의 이미지를 구축한다. 이상경의 경우 단행본에서는 관련 내용을 보충하여 책의 첫 부분을 장식한다.<sup>5)</sup> 박경수와 김순전 역시 “2. 사상의 성립과 그 발자취”를 두고 약간의 내용을 가미하는 정도이다(336-341). 이 가운데 임순득의 생애를 비교적 간결하고 명확하게 정리한 박경수와 김순전의 예를 들어보자.

앞서 언급하였듯이 임순득은 극심한 식민체제하에서도 한 인간으

---

5) ‘제2장 가족환경과 지적 성장의 배경’, ‘제3장 독서회와 학생맹휴를 통해 성장한 여학생’으로 구성되어 있다(이상경, 『임순득, 대안적 여성 주체를 향하여』 9).

로서, 또 문학자로서 체제나 제도에 구애됨 없이 옳은 사상으로 초지일관하였으며, 그것을 자신 있게 주장하였다. 그렇다면 임순득의 그 크나큰 배포와 일관된 사상의 출발점은 과연 어디서부터였을까? 안타깝게도 임순득 개인사에 대한 일반적인 기록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그나마 학생운동 경력과 경찰조서 등에 의한 기록은 등단 이전 임순득의 흔적을 파악하는 자료가 되었다(336).

여기서 박경수와 김순전은 임순득 문학의 특징을 “초지일관”한 “옳은 사상”과 자신 있는 “주장”으로 보고 있으며, 그것의 “출발점”을 등단 이전 “학생운동 경력”에서 찾고 있다. 물론, 하나의 문학 작품에 녹아 있는 작가적 의식과 태도를 판단할 때 그의 삶의 자세와 행적을 살피는 일은 충분히 있을 법하며 매우 유용한 경우도 많다. 이러한 면에서 그의 생애의 초점이 학생 시절로 모아지는 것 또한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 수 있다.

실제로 임순득은 1929년 11월부터 약 4개월에 걸쳐 일어난 광주학생 항일운동의 열기를 이어받아 1931년 6월 이화여고보에서 동맹휴학 운동을 주도한 혐의로 40여 일간 취조를 받은 후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되었으며, 이 사건으로 이화여고보로부터 퇴학 처분에 처해진다. 또한 1933년 7월에는 편입한 동덕여고보에서도 임택재에 의해 “동교 생도 중으로부터 동지를 획득할 일”<sup>6)</sup>을 하였다는 것이 문제가 되었는데, 이로 인해 퇴학되었을 확률이 커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동맹휴학운동은 1931년까지 무려 100여건에”(김순전 외 338) 이르렀을 만큼, “이화여고보에 특별한 것은 아니고 당시 학생들의 일반적인 분위기였다”(이상경, 「임순득의 소설 「대모(代母)」와 일제 말기의 여성 문학」 339)고 한다. 더구나 퇴학 이후 귀향 및 일본 유학

6) 「조선공산당 예심결정 전문 ⑥ 권영태 등 삼십사 명」, 『동아일보』1935.8.30, 3면. 한편, 이에 대해 이상경은 과거 피검 경력 때문에 퇴학되었다고 설명한다. 이상경, 『임순득, 대안적 여성 주체를 향하여』, 서울: 소명출판, 2009. 54-76쪽 참조.

으로 이어지는 임순득의 행보에서) 일본 제국주의에 대한 ‘저항’의 흔적은 찾아보기 쉽지 않다.

요컨대, 임순득 문학 연구에 있어 그의 삶은 학생 시절 등 특정 시기를 중심축으로 하여 언급되는 경향이 농후하다. 아울러 자연스레 그것은 그의 일본어 소설에서의 ‘비협력’ 혹은 ‘저항적 요소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양상을 보인다. 이는 임순득 문학 연구가 여타 일본어문학의 경우와 다를 바 없이, “민족과 국가라는 틀을 넘은 시각으로 살펴봄으로써 “일제강점기 한국문학의 거세된 정체성을 재건”한다는(김순전 외 7) 다소 모순적인 취지하에 이루어졌기 때문일 것이다. 작품 텍스트에 대한 정확한 해독 및 적절한 해석과 콘텍스트적인 차원에서의 다양한 층위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 및 심도 있는 고찰이 요구되는 이유이다.

### 3. 일본어 소설에 내재된 임순득의 작가의식을 찾아서 :

「대모」를 중심으로

1916년생인 임순득은 중일전쟁이 발발(1937.7)하기 직전인 1937년 2월부터 작품 활동을 하기 시작하여, 해방 전까지 약 12편의 소설과 평론과 수필을 남겼다. 38선 이북 지역(강원도로 추정)에서 해방을 맞은 그는, 일명 ‘중파투쟁’ 사건으로 숙청되는 1957년 6월까지 약 35편에 달하는 작품을 발표하여 초기 북한문학사의 주류를 형성하기도 하였다. 이 가운데 그의 개인적 문학사(文學史)의 전반기라 할 수 있는 해방 이전까지의 작품 목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7) 박경수와 김순전은 “경찰조사에 의하면, 임순득은 더 이상 조선에서 학교를 다닐 수 없어 전주로 귀향하였다가, 유학차 일본으로 건너가 일본의 여고사(여자고등사범)에서 문학공부를 하였으며, 귀국한 이후 서울 견지동에 있는 ‘조선미술공예사’에서 잠시 기자노릇을 하였”다고 한다(김순전 외 339).

[표] 일제강점기 임순득의 작품 활동

시기	종류	제목	언어	게재지
1937.2	소설	일요일	조선어	조선문학
1937.6.30~7.5	평론	여류작가의 지위 -특히 작가 이전에 대하여	조선어	조선일보
1937.10.15~10.20	평론	창작과 태도 -세계관의 재건을 위하여	조선어	조선일보
1938.1.28~2.2	평론	여류작가 재인식론 -여류문학선집 중에서	조선어	조선일보
1939.4.16	수필	높의 췌기풀에 부침 (いらら草に寄せて)	일본어	국민신보
1939.5.17	수필	타부의 변	조선어	조선일보
1939.11.5	수필	작은 페스탈로치	조선어	매일신보
1940.1.7	수필	오하의 아몽	조선어	매일신보
1940.9	평론	불효기에 처한 조선여류작가론	조선어	여성
1942.10	소설	대모 (名付親)	일본어	문화조선
1942.12	소설	가을의 선물 (秋の贈り物)	일본어	매일사진 순보
1943.2	소설	달밤의 대화 (月夜の語り)	일본어	춘추

이러한 임순득의 문필 활동을 두고, 이상경은 “1930년대 후반” “최정희식 ‘여류’문학을 거부하고” “민족해방운동에 힘쓰면서 여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찾아나간 여성들과의 정신적 유대”를 추구한 것으로 평가한다 (『임순득, 대안적 여성 주체를 향하여』 5).

그렇게 보았을 때 걸리는 부분이 하나 있다. 바로 1편의 수필과, 총 4편의 소설 중에 3편의 작품이 일본어로 쓰였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이상경은 “작품의 실상을 살펴보면 사용된 언어가 무엇이었느냐가 이 시기 문학의 성격을 전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며, 일제말기 한글

이 전시동원을 위한 언어로 사용되었던 것처럼 일본어문학의 경우라도 “일제의 식민 통치에 저항을 꾀하는 작품”은 “한국근대문학사에서 평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임순득의 소설 「대모(代母)」와 일제 말기의 여성 문학」 356-357).

일견 타당한 견해라고 여겨지면서도, 위의 [표]에서 일본어로 작품이 쓰인 두 시점이 주목된다. 1942년 10월의 경우는 차치하더라도, 1939년 4월은 아직까지 조선문인협회가 결성되지도 『국민문학』이 창간되지도 않은 때였다. 특히 모두 임순득의 두 번의 문학적 공백기가 끝나는 시점이기도 한데, 결국 임순득의 수필 활동의 시작과 1940년대 모든 소설 활동이 일본어로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상경은 “첫 번째 공백기에는 오빠 임택재의 죽음이 놓여 있고, 두 번째 공백기에는 한글 신문 잡지의 폐간이 놓여 있다”(『임순득, 대안적 여성 주체를 향하여』 152)고 설명한다. 그러나 임택재의 사망(1939년 2월 16일)과 일본어 수필의 창작 사이의 연관성을 찾기는 힘들며, 한글 신문 및 잡지의 폐간에 있어서도<sup>8)</sup> 1939년과 1940년에 수필을 발표한 『매일신보』(每日新報)의 경우 해방 이전까지 한글신문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다.

한편, 서두에 언급한 바대로 문학계에서는 1940년 8월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폐간된 후 당국의 주도 하에 『문장』과 『인문평론』이 통합되어 1941년 11월 “반도 유일의 문화잡지를 표방”하는 『국민문학』 창간이 이루어졌다(오테영 135). 이에, 문학인은 자신의 글이 실릴 지면은 양적으로 줄어드는 반면 작품에 대한 외압은 커지는 환경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때, 창작 활동을 지속하는 일은 ‘시대’로 강조되던 식민 혹은 국가 권력이 짜 놓은 틀 안에 들어가 그(것)들이 정한 규칙에 순응함을 전제로 하는 것이었다.

---

8) 조선총독부의 신문잡지 통제의 일환으로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자진)폐간된 것은 1940년 8월의 일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찌되었든 임순득은, 태평양전쟁 발발(1941.12.8) 이후 전황의 급박함 속에 전시체제가 갈수록 공고화되어 가던 1942년 10월부터 1943년 2월에 이르는 시기, 당대 권력으로부터 발행 및 유통을 허용받던 『문화조선』,<sup>9)</sup> 『매일사진순보』,<sup>10)</sup> 『춘추』<sup>11)</sup> 등의 잡지에, 3편의 일본어 소설을 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내용상으로는 임순득의 일본어 작품들 특히 1942년부터 1943년 사이에 발표된 소설 작품 속에 ‘친일’의 요소는 들어가 있지 않아 보인다. 이는 “새로운 체제에 편승하여 점차 친일로 방향전환”한 “대부분의 조선의 작가들”의 모습과는 분명 구별되는 점이다(김순전 외 333). 앞선 논의의 과정에서 드러나고 있듯, 이러한 이유로 최근 연구자들로부터 가장 주목받는 작품은 단연 「대모」라 할 수 있다.

이 작품의 이야기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일본 유학 도중 건강상의 문제로 조선에 돌아와 있던 ‘나’는 사촌 남동생으로부터 곧 태어날 아이의 이름을 지어달라는 연락을 받는다. ‘나’는 사촌동생의 결혼식 때 사촌의 아이 이름을 지어주기로 약속한 적이 있었으나, ‘나’를 이성으로 느끼는 사촌의 태도에 부담과 혼란을 느껴 그간 사촌과 연락을 취하지 않고 있던 터였다. 사촌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기 위해

---

9) 『문화조선』은 1935년 9월~10월 경 이몽과 노재섭에 의해 창간되어(『문화조선』간), 『매일신보』1935.9.28, 3면) 이어 가다가, 1940년대에는 1943년 6월 15일부터 6월 20일까지 편집부 주최로 ‘연성하는 반도청년’이라는 특집 사진전을 개최하는 등 ‘시국’에 영합하게 되었다. 일제강점기 시인, 작가, 화가, 문학평론가, 언론인 조우식의 경우 여기에서 글을 발표하고 촉탁기자(1943년 4월 전후 ~ 1944년 2월)로도 활동한 바 있었다. 인터넷 위키백과

(<http://ko.wikipedia.org/wiki/%EC%A1%B0%EC%9A%B0%EC%8B%9D>)참조.

10) 매일신보사가 발행한 『매일신보 사진순보』를 가리킨다.

11) 1941년 2월 1일부터 1944년 10월 1일까지 발행된 월간 종합잡지이다. 동아일보 기자 출신의 양재하가 주축이 되어 조선춘추사에서 발간되었다. 조선어 말살 및 잡지 통폐합 정책의 여파로 1941년 4월 『문장』, 『인문평론』 등이 자진폐간된 후에도, 『조광』 등과 더불어 친일협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간행되었다. 인터넷 네이버 지식백과 (<http://terms.naver.com/entry.nhn?cid=543&docId=694753&mobile&categoryId=543>) 참조.

고심하던 ‘나’는 소설을 쓰는 친구 ‘고려아’에게 어떤 이름이 좋을지 묻는다. 두 사람은 한참의 대화 끝에 ‘고려아’가 구상 중인 작품의 여주인공 이름 ‘혜원’과 ‘모세’, ‘굴원’에서 한 글자씩을 따서 지은 ‘세원’이란 이름을 각각 여아(女兒), 남아(男兒)의 이름으로 정한다. 고려아와 헤어져 집으로 돌아온 나는 사촌으로부터 딸아이가 태어났다는 전보를 받는다. ‘나’는 자신에게 친절을 베풀었으나 과도한 호의를 부담으로 느껴 거리를 두어 왔던 일본의 K선생, 다정한 친구 ‘고려아’ 등에게 미안함과 고마움을 느끼며 사촌에게 긴 편지를 쓰기 시작한다.

단편소설 「대모」의 가장 커다란 내용의 줄기는 서술자인 ‘나’가 얼마 후 태어날 조카(사촌 남동생의 아기)의 이름을 지어준다는 데 있다. 박경수와 김순전은 이 작품을 내용 전개 상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 “사촌조카의 이름 짓는 과정에서 드러난 민족해방”과 “‘나’와 친구 ‘고려아’와의 대화 속에서 드러난 진정한 여성해방”을 두 축으로 설정한다(박경수, 김순전 322). 이는 ‘파시즘에 맞서는 임순득의 여성문학’으로서의 「대모」가 “민족의 해방과 여성의 해방”(이상경, 『임순득, 대안적 여성주체를 향하여』 179)을 추구한다는 이상경의 시선과 맞닿아 있는 지점이기도 하다.

일제말기 일본어문학이라는 차원에서 이 소설이 새롭게 인식된 원인을 떠올린다면, 관심의 초점은 자연스레 전자(前者)인 ‘민족’에 맞추어진다. 그런데, 극한의 식민지적 상황에서 민족의 해방을 이야기할 때 반드시 전제되는 것이 바로 민족의 수난 혹은 위기일 것이다. 이에, 「대모」의 주요 사건으로 자리하는 (조선인) 조카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것과 주요 인물로 등장하는 ‘고려아(高呂娥)’의 존재의 설정에서 ‘비협력’의 흔적을 찾는 작업에 일견 타당성이 엿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먼저 고려아라는 인물을 들여다보자. 고려아가 작품에서 ‘나’ 자신, 나아가 작가인 임순득을 의미한다는 점에서는 연구자들 사이에 거의 이견이 없는 듯하다. 특히 박경수와 김순전은 그 이름을

두고 한반도에 존재하였던 조선 이전의 국호인 ‘고려(高麗)’ 또는 ‘고구려(高句麗)’를 연상시킨다며, 여기에 “민족성”과 관련된 “작가의 의도가 작용하였으리라” 보고 있다(박경수, 김순전 315). 충분히 가능한 해석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이는 조카가 여아일 경우 굴원(屈原)이 『초사(楚辭)』에서 지조의 상징으로 사용한 풀 이름을 따서 ‘혜원(蕙媛)’으로, 남아일 경우 『구약 성경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해방의 지도자 ‘모세(毛世)’와 굴원의 이름을 하나씩 따서 ‘세원(世原)’으로 짓기로 하였다는 내용과 이어지며 설득력을 확보한다.

한편 아기의 이름을 지어주는 것에 대해 살펴보자. 소설의 일본어 원제목이 ‘이름을 지어주는 사람’을 뜻하는 ‘名付親(なづけおや, 나즈케오야)’라는 점이 말해주듯, 작품에서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한 상징적 주제를 내포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는 1940년 2월부터 실시된 ‘창씨개명(創氏改名)’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이에 관한 이상경의 주장을 들여다보면 다음과 같다.

1943년(실제로는 1942년-인용자)에 일본어로 소설을 쓰면서 임순득이 어느 쪽 용어를 염두에 둔 것인지는 확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작품이 새로 태어날 아기의 이름을 짓는 문제를 소재로 하여, 이름이라는 것이 한 인간의 정체성과 직결된 것임을 역설함으로써 일제가 실시한 ‘창씨개명’정책과 거기에 앞장서서 호응하고 나선 일부 조선의 지식인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다는 것이다 (이상경, 『임순득, 대안적 여성 주체를 향하여』 176). (강조-인용자)

여기에는, 특히 글의 말미에는 논란의 여지가 존재한다. 실제로 작품에는 창씨개명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을 뿐 아니라, 그것에 대한 ‘비판’의 모습도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이다. 더욱이, 임순득과 그의 가족들 모두 ‘창씨개명’을 하였다는 점으로 미루어보아, ‘조선의 지식인’으로 대표

되는 사람들을 반대편의 입장에서 혹은 제3자의 위치에서 적극적으로 '비판'하기란 쉽지 않았을 것이다.

신고제 형식을 띠었던 창씨개명은, 1939년 11월 10일 제령 제19호로 '조선민사령(朝鮮民事令)' 개정 절차를 밟은 후 진무(神武) 천황의 즉위 2600주년을 기념하는 '기원절(紀元節)'로 정해진 1940년 2월 11일부터 동년 8월 10일까지 6개월간 진행되었다. 그런데, 홍일표에 따르면 "5월 말까지의 신고자 비율이 7.6%에 불과했던 것이 후반 3개월 동안 급증하여 8월 10일 현재에는 무려 평균 79.3%나 신고"하였다. 이는 "창씨개명의 '강제성' 여부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는 지점"(홍일표 76)이다. 한편 임순득(任淳得)의 호적 상의 이름은 1940년 8월 5일자로 '도요카와 준(豊川淳)'으로 변경되었는데(이상경, 『임순득, 대안적 여성 주체를 향하여』 177), 시점만을 놓고 본다면 그가 적어도 적극적으로 창씨개명에 동참하지는 않았음이 추정 가능하다.

창씨개명은 1936년 8월 5일 제7대 조선총독으로 부임한 미나미 지로(南次郎)가 기반을 세우고 1942년 5월 29일 부임한 고이소 구니아키(小磯國昭) 총독이 본격화한 황국신민화를 통한 '민족말살정책'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었다. 이는 "중국적으로는 징병제 실시를 위한 대비책이었"다(친일문제연구회 203). 이에 1942년 5월 8일 일본 내각에서 조선에서의 징병제 시행이 의결되어, 이듬해 8월 1일부터 조선인에 대한 징병이 실시되었다. 병력 수탈과 함께 노동력 수탈도 강화되었다. 1939년 도입된 징용제가 1944년 2월부터는 전면적으로, 동년 8월부터는 강제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식민 권력의 입장에서 전쟁 장기화와 전장의 확대에 따른 이러한 '총력전' 태세 하에 천황제 이데올로기를 중심으로 하는 전시 파시즘의 체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sup>12)</sup> '내선일체'라는 기본 전제 하에 첫째

12) 변은진은, 당시 "천황제파시즘 하의 일본은 단일한 대중정당과 1인 독재를 특징으로 하는 독일이나 이탈리아의 파시즘과는 달리 '위로부터' 강력히 구축된 파시

조선인의 민족성을 완전히 지우거나 둘째 그것에 ‘일본정신(大和精神)’을 덧입히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였을 터이다. 이를 위해 “제국 일본과 식민지 조선의 관계가 식민/피식민의 관계에서 제국/지방의 관계로 재편되는 상황 속에서 제국발 담론과 연동하는 한편 그것에 균열을 내는 공론장”이 마련되었음은 물론이다(오탈영 136).

그리고 위의 ‘제국발 담론’은 첫째의 경우 “조선의 민족성은 물론이요, 조선어·조선문화의 폐기까지 주장”한 현영섭과 이광수 등의 ‘철저 일체론’으로(김명구 외 44), 둘째의 경우 “민족의식을 포기하고 신일본민족으로 통합”하되 “조선민족의 고유한 어어 문화전통 민족정신 등”의 보존을 역설한 인정식 등의 ‘협화 일체론’으로(김명구 외 48) 구체화되어 조선의 지식인들에게 여러 갈래로 전유되었다.

이렇게 창씨개명의 궁극적 지향점에 위치한 내선일체의 방향을 두고 조선인 엘리트(집단)들 간에도 이견이 팽배하였던 바, 심지어는 식민지 조선에 관심이 많았던 일본 여류 작가 사타 이네코(佐多稻子)의 예에서와 같이 동시기 일본인에게도 ‘창씨개명’에 대한 ‘덜레마(板ばさみ)’와 ‘어중간함(中途半端)’이 감지되곤 하였다(송혜경 117).

이렇듯 창씨개명에 대한 다소의 애매함과 모호함이 상존하던 상황에서 자신 역시 창씨개명에 동참한 임순득이 어떠한 방식으로든 창씨개명 정책과 이에 호응한 당대 지식인을 비판하기란 쉽지 않았을 것이다. 비판의 행위는 그것이 취해지는 순간부터 필연적으로 자기모순을 전제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

증체제였기 때문에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식민정책에서 더 강한 통제와 억압을 강행했다.”라고 설명한다(한일관계사연구논집 편찬위원회 296).

#### 4. 현실의 자신과 이상적 자아의 균열과 괴리: 작가와 작품 속 ‘나’, 작가와 ‘고려아’의 관계성을 통해

고려아가 ‘나’ 자신, ‘작가’ 자신을 의미한다면 그 이유와 근거, 그리고 창작가의 의도는 무엇일까. 임순득의 다른 소설에도 극중 화자로서 ‘나’가 등장하기는 하지만, 그것이 극 중 다른 인물 및 작가의 분신으로 확장되어 해석되고 있는 예는 「대모」가 유일하다.

여기서 ‘고려아’라는 인물에 다시 한 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소설 속에서 사춘으로부터 곧 태어날 아이의 이름을 지어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는 사람은 주인공 ‘나’이다. 그런데 정작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게 되는 사람은 ‘나의 친구이자 소설가인 고려아’이다.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이 ‘고려아’를 작품 속 ‘나’의 분신이자 작가 ‘임순득’의 분신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보다 세밀히 살펴보면 「대모」에서 작가 임순득의 분신은 ‘고려아’가 아닌 ‘나’에 국한된다. ‘고려아’는 현실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그러나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기 바라는 작가가 창조적으로 형상화시킨 이상적 자아로 해석된다.

“나에 대해서 말한다는 것은 지금의 내게 있어선 하소연뿐이야.  
그게 지금 내 오르가니즘이니까.”

“알미워라. 오르가니즘이라고 비꼬지 마” 려아는 내 손끝을 꼬집고는,

“넌 하소연하는 것이 부끄럽지? 하소연은 많이 할수록 좋은 거야. 우리들에게 하소연을 빼 봐. 아니 억제해 봐. 자폭하고 말걸? 친한 친구가 있어 서로 끊임없이 하소연하고 서로 위로하고 위로받는 것에서 바로 불심이 생기고 그럼으로써 세상이 살기 좋은 곳이 되는 건지도 몰라”

“호? 하소연 속에서 불심이 생긴다고? 불심은 보리수 그늘에서만

www.kci.go.kr

생기는 건 줄 알았는데”(김재용 외, 『식민주의와 비협력의 저항』 217)?

“이런 가을밤에는 슈니츨러의 소설이라도 읽는 게 좋겠다.” 라며 아름다운 속눈썹을 슬프다는 듯이 깜빡거리는 것이었다. 나까지 덩달아 슬퍼졌지만 바로 이어서 그런 나 자신의 나약함에 대해 혐오감을 느꼈다(220).

위의 인용문들에서 ‘우리들에게’ 하소연하라고 종용하거나 오스트리아 출신의 문학가 슈니츨러(Arthur Schnitzler)의 소설을 끄집어내며 감상에 젖는 이는 고려아이며, 그것을 바라보며 빈정거리거나 “자신의 나약함에” 혐오감을 느끼는 사람은 ‘나’이다. 일견, 고려이는 감상에 젖어 어리광부리는 철없는 숙녀, ‘나’는 현실적이고 이성적이며 강인한 여성으로 비취질 수 있는 부분들이지만 작품 전체의 맥락에서 본다면 그렇지 않다.

자신에게 연정을 표하는 조카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러하고, 친구인 ‘고려아’에 대해서도 ‘나’는 어디까지나 방관자의 위치에서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한다. 조카의 고백에 답을 하지 않은 채 회피한다거나 고려아의 감상에 동조하기를 꺼려하는 ‘나’는 솔직하지 못한 냉소적인 성격의 소유자라 할 수 있다. 주목할 부분은 소설 속 ‘나’가 그러한 자신을 한심하게 여기면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때 ‘나’로 하여금 자신의 모습을 반추해보도록 하는 한편, 스스로와 화해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이가 바로 ‘고려아’이다.

“나 감시하는 거 그만 해. 난 네 옆에 있으면 유난히 초라해 저. 너란 사람은 조용한 것 같으면서도 도무지 틈이 없단 말야. 하루 종일 남산만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아니꼬.” 그렇게 말하고는 정말 싫

다는 듯이 나를 향해 손사래를 치는 것이었다. 순간 나는 움찔했다. (중략) 결국 내가 부덕해서다. … 일단 생각이 여기에 미치자 나 자신이 한심해졌다(222).

“그래, 난 진짜 대모는 아냐. 아이의 대모는 고려아야. 관음상도 K선생님의 선물이고. 그리고보니 나는 사촌 동생 부부에게 뭐 하나 나의 생각대로 진심을 표현한 적이 없어.” 그리고 이런 생각을 했다. ‘혜원이라는 아이의 백일에는 이런 선물을 가지고 진주에 있는 사촌 집에 가야지. 진홍생 안감에 녹색 곁감인 순면 이불을 만들어 네 귀퉁이에 혜초의 수를 놓아야지. 이거야말로 나의 훌륭한 창안이잖아. 혜원은 그 이불을 덮고 착한 아이로 자랄거야’ … 내일은 빨리 도서관에 가서 식물도감을 열심히 찾아봐야지. 돌아오는 길에는 사과를 사가지고 려아에게 들러서 이름을 지어준 것에 감사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간 김에 사갓고 간 사과라도 꺾어 먹으면서 스피노자의 이야기를 들어 줘야겠다고 생각했다. 지금 그녀의 슬픔을 들어 주지 않으면 웬지 평생동안 책임감을 느낄 것만 같았기 때문이었다. … 진주에서 돌아와서는 가마쿠라의 K선생님에게 다시 한 번 관음상에 대해 감사하다고 전하고 … (김재용 외, 『식민주의와 비협력의 저항』 223).

‘나’는 고려아와의 대화 말미에서 가슴이 움찔하는 것을 느끼며 ‘조용한 것 같으면서도 틈이 없’어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초라함을 느끼게 하는 스스로의 태도를 반성하게 된다. 나아가 이를 토대로 주변과의 화해 및 자신과의 화해를 시도한다. 고려아는 ‘나’를 대신해 조카의 이름을 지어준은 물론, ‘나의 냉소를 무너트려 자신에 대한 반성과 자신과의 화해를 돕는 존재인 것이다.

전술한 것처럼, 임순득은 결국 창씨개명에 동참하였다. 창씨개명을 하기까지의 개인적 사정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기 어려우나, 제국주의 및 친일 행위의 반대편에 서서 민족해방과 여성해방을 도모하던 임순득

이 창씨개명에 동참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통감하였을 괴리감과 자책감은 어렵지 않게 짐작해 볼 수 있다. 이러한 면에서, 임순득이 「대모」 속 ‘고려아’를 자신의 분신으로 삼아 창씨개명 정책에 대해 정면으로 비판을 가하고 있다는 선행연구들의 주장은 필연적으로 한계를 노정한다.

곧 태어날 아기에게 조선식 이름을 붙여준다는 설정 자체가 ‘창씨개명’이라는 식민지 당국의 정책에 부합하지 않는 이상 이러한 점에 임순득의 비협력적 태도가 엿보이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작가의 복잡한 입장과 심경이 작품에 어떻게 투영되어 있는지에 대해 작품 내용을 바탕으로 좀 더 세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민족과 여성의 해방을 꿈꿨으나 식민지 여성으로서의 한계를 느꼈을 작가 임순득은 자신의 분신격인 ‘나’를 통해서가 아니라 이상적 자아인 고려아에게 조카의 이름을 짓게 하는 한편 이를 통해 현실의 ‘나’를 반추하고 반성한다. 고려아는 작가가 창조해 낸 이상적 자아로서, ‘나’로서는 불가능한 일을 능수능란하면서도 떳떳하게 감당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나’ 자신과의 화해까지 가능케 하는 존재라 할 수 있다.

아울러 설사 임순득이 「대모」를 통해 창씨개명을 비난하는 한편 민족해방을 논하고자 하였다는 선행연구의 논지가 명백하게 타당하다 하더라도, 이 작품을 단지 그러한 관점을 통해서만 읽어내는 데는 분명 문제의 소지가 있다.

물론, 「대모」에서 일본 제국주의와 친일 협력자(들)에 대한 저항의 표시나 비협력적 태도에 대한 암시를 전혀 찾아 볼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다만, ‘친일문학’의 오명을 얻은 여타 일본어 작품들의 경우와 다를 바 없이 이 작품을 읽어내고 해독함에 있어서도 방향을 달리할 뿐 ‘협력/저항’의 이분법적 틀이 적용될 수 있음을, 적용된 바 있음을 또한 경계할 필요는 있다.<sup>13)</sup> 특정 작가나 작품을 연구할 때, 미리 짜인 이항대립적인 도식을 통해 그(것)를 살핀다면 오해 또는 오판의 소지는 더욱 증

대되기 마련이다. 그리고 이러한 이항대립적인 도식은 일본어문학, 이  
중어문학 작품에 접근하는 일차적인 통로인 ‘번역’에 있어서도 문제점을  
노정한다.

## 5. ‘오쿠니(お国)’의 번역 문제를 통해 표출되는 번역 과정에서의 자국화 경향

수많은 번역서만큼이나 다양한 번역이론들이 존재하지만, 동서고금을  
관통하는 번역에 대한 두 가지 이론의 축은 ‘원문에 대한 충실성’과 ‘번  
역문으로서의 가독성’으로 압축될 수 있을 것이다(김정정 183). 이 같은  
개념의 축은 ‘자국화’와 ‘이국화’라는 대립항을 통해 설명되기도 한다. 번

- 
- 13) 천정환의 경우, 이 작품에 등장하는 ‘나’를 “포에지적 자아, 혹은 고전에 연결된  
‘나’로 명명한다. 그에 따르면 「대모」에서의 ‘나’의 문학적 의식과 지향은 두  
방향의 ‘벡터’를 가진다. 하나는 “조선문학의 장에 관련되어 있”으며, 다른 하나  
는 “보편적인 문학 능력이나 고전주의에 연관되고 있다.” 이 가운데 전자의 경우,  
‘나’를 돌아보게 하고 조카의 이름을 지어주는 고려아는 ‘나’의 분신이자 작가의  
분신으로 자리한다. 이러한 그의 행위는 때로는 ‘상징적 저항’을 함의한다. 그런  
데 후자의 영역에서, ‘나’는 “식민주의와 조-일 관계로부터 비껴있는 주체”로서  
특별한 위치를 점유하기도 한다. 그리고 이는 “193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성장하  
고 있던 여성 수용자층의 상황을 반영한” 측면이 있다(70-74). 이와 같은 해석  
은, 이 작품에 반영된 일제말기 조선 (여성) 문학인의 분열적 자아상과 다방면의  
지향을 포괄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유효해 보인다. 하지만 「대모」가 ‘나’를 “형상  
화”하는 사소설의 형식을 갖추고 있는 만큼, ‘분열된 자아’ ‘다면의 지향’을 ‘나’와  
고려아의 보다 명확한 존재성의 분리를 통해 보다 세밀히 분석할 필요도 있다.  
천정환의 설명대로라면 이 작품의 ‘나’는 일관적으로 문학에서 존재 가치를 추구  
하면서도 때로는 고려아에 판단을 의지하고 때로는 자기 주장을 개진하는 인물  
인데, 이러한 고려아에 대한 ‘나’의 태도나 관계의 유동성을 감안할 때, 두 인물  
을 완전히 동일한 존재로 보기에 는 무리가 따르기 때문이다. 여기서 중요한 점  
은, 「대모」에서의 ‘나’의 지향은 문학 분야에만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  
이다. 그렇기에 ‘나’는 고려아는 물론 사촌동생, 조카, K선생과의 관계망 속에서  
(세계적 문호로 표현되는) 외부 세계를 인식하고 자신의 (문학적) 세계관을 구축  
하고 있는 것이다.

역자들은 원문을 다소 훼손시키더라도 수용자들의 이해도를 높일 것인지(자국화) 아니면 외국의 원문을 보전하는 데 주력할 것인지(이국화), 이 두 가지 사안을 놓고 오랜 시간동안 대립하여 왔다(김한성 127).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두 개념축의 대립 관계가 단순히 '원문-번역문'이라는 텍스트적 차원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번역 과정에서 일어나는 자국화 및 이국화 현상은 텍스트 밖으로 확산되어 나와 콘텍스트적인 측면에서도 무수한 길항 관계를 창출해낸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대개의 선행연구들은 임순득의 생애와 그의 작품들을 저항 및 비협력, 민족해방, 여성해방 같은 거대 담론 및 가치들과 결부시켜 위치 짓고자 하는데, 흥미로운 것은 이들 연구들이 주요 텍스트나 참고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대모」의 번역 과정에서도 자국화 현상이 발견된다는 점이다. 다음의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자.

예1) おくにの慶州のそれとはまた異なった美しさ(大村益男, 布袋敏博, 『創作篇 4』 436)

→ 경주의 그것과는 다른 아름다움(김재용 외, 『식민주의와 비협력의 저항』 212)

예2) 貴女がおくにへ帰られる時(『創作篇 4』 436)

→ 당신이 당신 나라에 돌아갈 때(김재용 외, 『식민주의와 비협력의 저항』 212)

예1)과 예2)는 모두 주인공 '나'가 'K선생'과 대화를 나누는 도중에 K 선생이 하고 있는 말들이다. 그런데 이 가운데 예1)의 'おくに(お国, 오키니)'는 번역 과정에서 누락된 반면, 예2)의 'おくに'는 '당신 나라'라는 말로 의역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K선생은 등장인물 중 유일하게 이름이 알파벳으로 표기되어 있

으며 거주지가 가마쿠라로 설정되어 있다. 이를 통해 그를 일본인으로 추정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원문 어디에서도 K선생이 일본인이라고 명시된 부분은 찾아보기 힘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번역지는 ‘おくに’를 ‘당신 나라’로 해독하여 표현함으로써, K선생의 민족성에 대한 보다 다양한 해석의 여지를 차단한다.

1910년 8월 29일 한일병합 이후부터 1945년 8월 15일 해방에 이르는 기간 동안 식민지 조선은 공식적으로, 특히 일본인에 있어서는 더욱 ‘제국’의 영역 안에 속하는 ‘일본’과 동일한 국가로 인식(혹은 인식함을 강요받게)되었다. 더구나 「대모」는 일본 제국주의 및 내선일체 정책이 기치를 드높이고 있던 1942년 시점에 발행된 소설이다. 설사 K선생을 내지(内地) 일본인으로 추정한다 하더라도, ‘おくに’라는 단어가 ‘당신 나라’를 의미하였을 것으로 봐도 무방할지는 의문이다.

이에, ‘고향(おくに)’으로 번역해도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이는 부분을 굳이 ‘당신 나라’라고 의역한 데에는 분명 번역자의 특정 의도가 개입되었기 때문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이야말로 번역에 있어서의 ‘자국화’ 경향이라 할 만하다. 그리고 이는 현재를 살아가는 한국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목적과, 일제에 대한 저항-비협력을 실천한 작가로서의 임순득이라는 인물을 부각시키려는 의도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번역학의 주된 관심은 “무엇을 번역하는가(What to translate)?”와 “어떻게 번역하는가(How to translate)?”에 있다(유명우 232). 지금까지 살펴본, 이국화-자국화 등 번역 관련 개념들과 「대모」 번역에 있어서의 자국화 현상은 모두 어떻게 번역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연관된다.

그러나 정작 번역의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것은 ‘무엇을 번역하는가’의 문제이다. 이는 ‘어떻게 번역할 것인가’의 전제가 되면서 그것의 방법론을 결정짓는 근본적인 물음이기 때문이다. 「대모」의 번역 가운데 일부가 ‘반역(半譯/反譯)’이 되어버렸다면, 그 이유 역시 무

엇을 번역하는가에 관한 번역자의 진지한 물음과 고민이 충분히 못하였던 탓은 아니었을까.

일본어 단편소설 「대모」는 2002년과 2003년, 그리고 2009년에 각각 이상경의 논문, 김재용의 자료집, 이상경의 저서를 통해 그 전문이 한국어로 소개되었다.<sup>14)</sup> 2002년 이상경의 논문에서 김미란에 의해 번역된 것이 2003년에는 그대로 김재용의 단행본에 실렸으며, 그로부터 6년 후인 2009년에는 이상경의 단행본에 다시 게재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2002년도의 번역본과 2009년도의 그것에서 달라진 점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기존 한글 번역본의 오류들이 수정되지 못한 채 답습되어 왔음이 짐작 가능하다.

임순득 연구의 선구자라 할 수 있는 이상경은, 2009년 「대모」 번역본을 다시 실으면서 자신이 직접 이전의 김미란의 번역본을 다듬었다고 밝히고 있으나, 번역 상의 오류들은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 수정된 부분이라고는 ‘미안혀’를 ‘미안해용’으로 바꿔 쓴 정도가 전부였다. 「대모」의 번역자에게 있어 중요한 것은 「대모」의 내용이었으며, 번역 과정은 그 내용을 취하기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았던 셈이다.

문학 장르의 번역 과정에서 특권을 누려야만 한다. 그러나 이는 일본의 근대 문학자들이 주장하였던 문학 번역의 특권(원문의 내용(想)뿐 아니라 단어(詞)와 어조(調)까지도 고려해서 번역해야 한다)(정병호 124)과는 성질을 달리한다. 무라카미 하루키는 문학 작품을 번역하는 데 편견 있는 애정이 전제되어야 함을 역설한다. 그가 말하는 ‘편견 있는 애정’이란 번역 대상인 작품과 작가에 대해 번역가가 지니는 자기 나름의 작가상, 애정 그리고 공감(김춘미 236)을 가리킨다. 문학 장르 번역의 ‘특권’으로 칭

---

14) 이상경. 「임순득의 소설 「대모(代母)」와 일제 말기의 여성 문학」. 『여성문학연구』8 (2002): 331-384; 김재용. 『일제말 전시기 일본어 소설선 2 -식민주의와 비협력의 저항』. 역락, 2003; 『임순득, 대안적 여성 주체를 향하여』. 서울: 소명출판, 2009 가 이에 해당한다.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바로 이것에 다름 아닐 것이다.

특정 연구 주제를 도출해내기 위한 학술적 수단으로서의 번역이 아닌, 편견 있는 애정을 바탕으로 한 번역의 과정을 거쳤다면 「대모」는 지금과는 다소 다른 한국어 번역본으로 자리하지 않았을까 조심스레 상상해본다.

## 6. 결론

2000년대 이후, 식민지 일본어문학을 ‘친일문학’ 일변도가 아닌 ‘이중어문학’이라는 새로운 틀에서 바라보고자 하는 연구들이 시도되어 왔다. 연구의 활성화에 발맞추어 작품의 번역 활동 또한 활발히 진행된 바 있다.<sup>15)</sup> 임순득 역시 그 과정에서 발굴된 작가 중에 한 명이다. 학계에서 그는, 일본 제국주의에 대해 비협력의 방법으로 저항을 표한 대표적인 여류 작가로서 새롭게 조명되고 있다.

그의 작품 중에서도 특히 주목받고 있는 것이 「대모」이다.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이 작품을 통해, 작가 임순득이 일제치하에서 민족해방과 여성해방의 주제를 과감히 표출하였다고 분석한다. 이들 연구는 일제강점기 문학작품들, 특히 일본어로 쓰인 작품들에 ‘무조건적’으로 메여진 ‘친일’의 멍에를 벗겼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의를 지닌다. 그러나 이들 연

---

15) 2000년대 이후 과거 음지에 묻혀 있던 여러 일본어문학 작품들이 번역되어 소개되기도 하였다. 대표적인 경우가 김재용 등이 편역한 “일제말 전시기 일본어 소설선” 1편 『식민주의와 협력』(2003) 및 2편 『식민주의와 비협력의 저항』(2003)인데, 바로 2편에 임순득의 일본어 소설 「대모」와 「달밤의 대화」가 실려 있다. 함께 이름이 올라 있는 작가가 한설야, 김남천, 김사랑임을 감안할 때, 임순득의 경우 가히 ‘새로운 발굴’이라 칭할만하다. 한편, 이상경이 펴낸 『식민주의와 문화 총서 9 - 일제 말기 파시즘에 맞선 혼의 기록』(2009)에는 김사랑, 김남천, 한설야, 이태준, 지하련의 작품과 함께 임순득의 「가을의 선물」이 포함되어 있다.

구에서조차도 일제강점기 작가 또는 작품에 여전히 ‘협력/저항’의 이분법적 프레임이 적용되기도 한다.

반체제운동 경력을 지닌 식민지 여성으로서, 그러면서도 중일전쟁 이후 특수한 시기를 살아가던 지식인으로서 임순득의 입장과 심정은 ‘그녀’가 감당해야할 무거운 시대의 짐만큼이나 복잡다단하였을 터이다. 따라서 일본어로 글을 썼다는 것 또는 글이 쓰였다는 것 자체만을 두고 특정 작가나 작품에 ‘친일’이라는 불명예를 지게 해서는 안 되듯이, 협력의 행적이나 주장이나 묘사 등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그(것)들을 성급하게 저항의 극단에 세우려 해서도 안 될 것이다.

민족해방, 여성해방을 꿈꾸면서도 시대 조류의 변화 위력과 소(小) 개인의 한계 또한 절감하였을 임순득, 그는 「대모」를 통해 자신의 처지와 심경을 토로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작품에서의 ‘나’는 일본 유학을 다녀온 후 미혼인 상태로 설정되어 있으며, 실제로 임순득이 일본에서 귀국한 후 프랑스 유학과 출신이자 시인 장하인과 1940년에 결혼한다. 이 작품이 사소설의 형식을 띠며 일본어로 쓰였다는 사실과 소설상의 주요 인물의 말과 행동과 생각은 필연적으로 현실 속 작가의 경험과 성격과 가치관을 반영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소설의 시간적 배경은 1940년 이전으로 설정된 것일 수도 있다.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대모」가 발표된 1942년 시점에서 1940년 이전을 소환하는 것은, 그리고 이렇게 끝어온 제재를 가지고 일본어로 작문한다는 것은 일제말기 여류 작가 임순득에게 어떠한 의미였을까. 아니, 그(녀)는 도대체 어떠한 목적과 이유로 「대모」를 쓰고 발표하였던 것일까. 이러한 물음이 여전히 풀리지 않는 숙제로 남아 있는 이상, 이 효석, 김사랑 등의 일본어 문학 작품의 복합적이고 심층적인 부분을 인정하면서도 “일본어로 쓰고 발표한다는 (것은), 시국에 대한 중대한 타협을 매개로 해서나 탄생할 수 있었”(괄호 안-인용자)(방민호 274)음을 강조하는 방민호의 의미심장한 지적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역시도 이중어문학을 긍정적으로 재평가하고자 하는 학계의 '의도'에 의해 새롭게 부각되고 때로는 덧입혀지기도 한다. 한편, 임순득을 비협력과 저항의 상징으로 「대모」를 민족해방, 여성해방적인 작품으로 위치시키려는 시도는 번역 과정에서도 행해졌다. 번역 과정에서 행해진 이국화, 자국화는 단순히 '원문에 대한 충실성', '번역문으로서의 가독성'을 고려하는 차원에만 머물지 않았으며, 번역자의 의도와 욕망에 의해 콘텍스트적 측면으로 확산되어 나오게 된다.

문제는, 임순득을 바라보는 기존의 일방향적 시각과 번역 상의 오류들이 어떠한 면에서는 꾸준히 답습되어 왔다는 점이다. 탈민족적 관점에서의 연구를 지향하고자 하면서도 임순득을 민족적 정체성 안으로 포섭하려 드는 모순적 상황과 이중적 태도, 일본어의 비늘을 완전히 벗겨내지 못한 채 정체되어 있는 번역 작업에 있어서의 단일한 관행 등 임순득과 그녀의 작품을 또 한 번 다시보기 해야만 하는 이유는 '포스트 콜로니얼' 시대로 명명되는 현재에도 얼마든지 존재한다.

## 참고문헌

- 김경정. 「일한문학번역의 독자지향적 경향 연구 -『도련님』번역본을 중심으로-」. 『일어일문학』7 (2007): 266-70.
- 김명구 외. 『식민지·점령지하 협력자 집단과 논리 비교』. 서울: 선인, 2008.
- 김순전 외. 『조선인 일본어소설 연구』. 서울: 제이앤씨, 2010.
- 김재용 외 편역. 『일제 말 전시기 일본어 소설선 1 - 식민주의와 협력』. 서울: 역락, 2003.
- \_\_\_\_\_. 『일제말 전시기 일본어 소설선 2 - 식민주의와 비협력의 저항』. 서울: 역락, 2003.
- 김춘미. 「번역과 문학」. 『일본학보』 69 (2006): 225-40.
- 김한성. 「번역태도의 자국화와 이국화 : 일본어 소설 『고도 (古都)』의 영역 및 한역 비교 분석」. 『번역학연구』12,1 (2011): 123-43.

- 박광현. 「내지인 반도작가의 탄생과 그 전사」. 『고려대 일본연구센터 29차 콜로키움 발표문』, 2012.
- 박경수, 김순전. 「임순득, '창씨개명'과 「名付親」- '이름짓기'에 의한 정체성 찾기-」. 『일본어문학』41 (2009): 307-29.
- 방민호. 「일제말기 문학인들의 대일 협력 유형과 의미」. 『한국현대문학연구』22 (2007): 231-80.
- 송혜경. 「사타 이네코(佐田稲子)의 조선체험과 조선인식 : 〈이언어상황(二言語狀況)〉을 중심으로」. 『일본학회』87 (2011): 111-22.
- 식민지 일본어문학·문화연구회 편. 『제국일본의 이동과 동아시아 식민지문학』. 서울: 도서출판문, 2011.
- 신경숙. 「1930년대 후반 여성작가들의 관점 연구 - 임순득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원광대학교, 2004.
- 오태영. 「아시아 - 태평양전쟁과 조선의 위상 변동 - 인문사 편집부 편, 『대동아전쟁과 반도』를 중심으로」. 『일본학연구』34 (2011): 127-50.
- 유명우. 「한국의 번역과 번역학」. 『번역학연구』1.1 (2000): 229-48.
- 이상경. 『임순득, 대안적 여성 주체를 향하여』. 서울: 소명출판, 2009.
- \_\_\_\_\_. 「임순득의 소설 「대모(代母)」와 일제 말기의 여성 문학」. 『여성문학연구』8 (2002): 331-84.
- 정병호. 『실용주의 문화사조와 일본 근대문예론의 탄생』. 서울: 보고사, 2003.
- 정선태. 「일제 말기 '국민 문학'과 새로운 '국민'의 상상 - 조선문인협회 현상소설 입선작 〈연락선〉과 〈형제〉를 중심으로」 『한국현대문학연구』29 (2009): 351-79.
- 천정환. 「일제말기의 작가의식과 "나"의 형상화 - 일본어 소설 쓰기의 문화정치학 재론」. 『현대소설연구』43 (2010): 35-78.
- 최유리. 「일제 말기(1938년~45년) 「내선일체」론과 전시동원체제」.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1995.
- 친일문제연구회. 『조선총독 10인』. 서울: 가람기획, 1996.
- 한일관계사연구논집 편찬위원회. 『일제 강점기 한국인의 삶과 민족운동』. 서울: 경인문화사, 2005.
- 홍일표. 「일본의 식민지 '동화정책'에 관한 연구 - '창씨개명'정책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1999.
- 「조선공산당 예비결정 전문 ⑥ 권영태 등 삼십사 명」. 『동아일보』 1935.8.30: 3.

「『문화조선』 간」. 『매일신보』 1935.9.28: 3.

大村益男, 布袋敏博. 『近代朝鮮文学日本語作品集: 1939-1945. 創作篇 4』. 東京: 緑蔭書房, 2001.

\_\_\_\_\_. 『近代朝鮮文学日本語作品集: 1939-1945. 創作篇 5』. 東京: 緑蔭書房, 2001.

---

## Works Cited

- Bang, Min-Ho. "Iljemalgi Munhakindeului daeil hyeopryeok yuhyeon gkwa uimi" [Forms and Meanings of Writers' Collaboration with Japan during the 1940s]. *Hanguk Hyundaemunhak Yeongu* [The Journal of Modern Korean Literature] 22 (2007): 231-80.
- Cheon, Jung-Hwan. "Iljemalgiui jakgausikkwa 'Na'ui hyeon gsanghwa - Ilboneo soseol sseugiui munhwajeongchihak jaeron" [The Author's Consciousness and Construction of "I" in the Late Colonial Period: Reevaluation of the Cultural Politics of Writing in Japanese]. *Hyeondae Soseol Yeongu* [The Journal of Korean Fiction Research] 43 (2010): 35-78.
- Choe, Yu-Ri. *Iljemalgi(1938-1945) 'Naeseonilche'ronkwa jeonsidongwon cheje* [A study on Japanese colonial government's policy during the last period of Japanese occupation in Korea]. Diss. Ewha Womans University, 1995.
- Chinilmunjeyeonguhoe. Joseonchongdok 10in [10 People of the Joseon Government-general]. Seoul: Garamgihoek, 1996.
- Hanilgwangyesa yeongunonjip pyeonchan wiwonhoe [Committee for the Research on the History of the Relation between Korea and Japan]. *Ilje gangjeomgi hangukinui sarmgwa minjokundong* [The Life and national Movement of the Korean in the Period of the Japanese Imperialism]. Seoul: Kyeonginmunhwasa, 2005.
- Hong, Il-Pyo. *Ilbonui sikminji 'Donghwajeongchaek'e gwanhan yeongu-'Changssigaemyeong'jeongchaek'eul jungsimeuro* [A study on Japanese colonial government's policy for the Integration - for example 'name-making']. A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1999.
- Jeong, Byeong-Ho. *Silyongjuui munhwasajowa ilbon geundaemunyeronui tansaeng* [The Pragmatic Trend of Culture and the Birth of Japanese Modern Literature Theory]. Seoul: Bogosa, 2003.
- Jeong, Seon-Tae. "Ilje malgi 'Gukmin munhak'kwa saeroun 'gukmin'ui sangsang-Choseonmuninhyeophoe hyeonsang soseol ipseonjak <Yeonrakseon>kwa <Hyeongje>reul jungsimeuro"[The National literature in the 1940s and the Image of new 'Nation' ]. *Hanguk Hyeondaemunhak Yeongu* [The Journal of Modern Korean Literature] 29 (2009): 351-79.
- "Joseongongsandang yesimgyeoljeong jeonmun ㉞ Gwon Yeong-Tae deung samsipsa myeong"[the Text of the decision of a preliminary trial for chosun communistparty]. *Dongallbo* [Donga Daily Report] 1935.8.30: 3.
- Kim Kyeong-Jeong. "Ilhanmunhakbeonyeoui dokjajihyangjeok gyeon ghyang yeongu-『Doryeonnim』 bunyeokboneul jungsime uro" [A

- Study on 'Target-Audience Translation' in Japanese-Korean Literature Translation]. *Ileoilmunhak* [The Journal of the Japanese Language and Literature]7 (2007): 266-70.
- Kim Myeong-Ku et al. *Sikminji jeomryeongjiha hyeopryeokja jipdangwa nonri bigyo* [The Comparison between the cooperation group under the colonial occupation and the logic]. Seoul: Seonin, 2008.
- Kim Sun-Jeon et al. *Joseonin ilboneoseol yeongu* [A study for reviving Japanese literature by Koreans]. Seoul: Jnc, 2010.
- Kim Jae-Yong etc. ed. Trans. *Iljema jeonsigi ilboneo soseolseon 1 - Sikminjuuiwa hyeopryeok* [The Japanese Novels in Time of War under the Japanese Imperialism - Colonialism and Cooperation]. Seoul: Yeokrak, 2003.
- . *Iljema jeonsigi ilboneo soseolseon 2-Sikminjuuiwa bihy eopryeokui jeohang* [The Japanese Novels in Time of War under the Japanese Imperialism - Colonialism and Noncooperative Resistance]. Seoul: Yeokrak, 2003.
- Kim Chun-Mi. “Beonyeokgwa munhak” [Translation and Literature]. *Ilbonhakbo* [The Korean Journal of Japanology] 69 (2006): 225-40.
- Kim Han-Seong. “Beonyeoktaedoui jagukhwawa igukhwa: ilboneo soseol 『Godō』ui yeongyeok mich hanyeok bigyo bunseok” [Between Domestication and Foreignization: A Study of English and Korean Translations of the Japanese Novel The Old Capital]. *Beonyeokhak yeongu* [The Journal of Translation Studies] 12.1 (2011): 123-43.
- Li, Sang-Kyeong. “Im Sun-Deuk, Daeanjeok yeoseong juchereul hyanghayeo” [Im Sun-Deuk, for the alternative woman subject]. Seoul: Somyeongchulpan, 2009.
- . “Im Sun-Deukui soseol 『Daemo』 wa ilje malgiui yeosung munhak” [Im Sun-Deuk's Novel Daemo and Feminine Literature in the late Period of the Japanese Imperialism]. *Yeoseong munhak yeongu* [Feminism and Korean Literature]8 (2002): 331-84.
- Munhwajoseon Gan [‘Culture of Joseon’ Edition]. *Maeil Sinbo* [Maeil Daily News] 1935.9.28: 3.
- Omura Masuo·Hotei Toshihiro. *Modern Chosun Literature in Japanese: 1939-1945. Creative Works 4*. Tokyo: Ryokuinshobou, 2001.
- . *Modern Chosun Literature in Japanese: 1939-1945. Creative Works 5*. Tokyo: Ryokuinshobou, 2001.
- O, Tae-Yeong. “Asia-taepyeongyangkwa Joseonui wisang byeomdong - Inmunsa pyeonjipbu pyeon, 『Daedon gajeonjaengkwa Bando』reul jungsimeuro” [The Asia-Pacific War and the Topological change of Joseon - A focus on The Greater East Asea War and the Korean Peninsula]. *Ilbonhak Yeongu* [Japanese Studies] 34 (2011): 127-50.
- Pak, Kwang-Hyeon. “naejjin bandojakga'ui tansaengkwa geu jeonsa” [The

- 
- Birth of the Japanese author on the Joseon Peninsula and the past history]. *Koreadae Ilbonyeongu center 29cha Colloquium balpyomun [29th Colloquium Statement in the Center for Japanese Studies in Korea University]*, 2012.
- Park, Kyung-Su and Kim, Soon-Jeon. "Im Sun-Deuk, 'Changssigaemyeong' kwa 「A Godmother (Nazukeyoya)」 - 'Ireumjitki'e uihan jeongche seong chatgi" [Im Sun-Deuk, The 'Koreans to adopt Japanese names' and 「A Godmother(natsukeoya)」 - Finding Identity in the 'name-making']. *Ilboneomunhak [Korean Journal of Japanese Language and Literature]* 41 (2009): 307-29.
- Song, Hye-Kyeong. "Sata Inekoui Joseon cheheomkwa Joseon insik: <I coneo sanghwang>eul jungsimeuro" [Experience and Consciousness of Joseon(Korea) by Sata Ineko]. *Ilbonhakbo [The Korean Journal of Japanology]*87 (2011): 111-22.
- Sikminji Ilboneomunhak-munhwayeonguhoe, ed. *Jegukilbomui idongkwa dongasia sikminjimunhak [The Japanese Imperialism and the Colonial Literature]*. Seoul: Doseochulpanmun, 2011.
- Sin, Kyeong-Suk. "1930nyeondae huban yeoseongjagadeului gwanjeom yeongu - Im Sun-Deukeul jungsimeuro"[Research on the Perspective of the feminine Writers in the late 1930s]. A master's thesis. Wonkwang university, 2004.
- Yu, Myeong-U. "Hangukui beonyeokkwa beonyeokhak]. *Beonyeokhak Yeongu [The Journal of Translation Studies]*1.1 (2000): 229-48.

A Study on the Japanese as Depicted in the Literature  
of Joseon Korean in the Last Period of Japanese Imperialism:  
Im Sun-Deuk and “A Godmother” (“Nazukeoya,” 1942)

HAM Chung Beom(Hanyang University)  
CHOI Ga Hyung(Korea University)

Since the beginning of the new millennium, literary critics have tried to view Japanese literature in its Korean colony as a dual-language literature, not pro-Japanese. Im Sun-Deuk is one of the writers focused on in that process. Among her works, “A Godmother” is especially notable. Most preceding studies analyzed the writer Im Sun-Deuk as expressing national liberation and women’s liberation under the domination of the Japanese Empire. These studies have important meaning for those who tore off the “pro-Japan” label that had been pasted without reservation on the authors of works in the period of Japan’s violent occupation, especially on authors who wrote in the Japanese language. Such labeling missed the way that these studies applied a dichotomous frame of cooperation/resistance to the writers or works from the period of the violent Japanese occupation. But the issue boils down to this. The one-sided view established toward Im Sun-Deuk and the fallacy of applying it so translations were continued steadily in every aspect. There are many reasons that studies must continue on the question of her supposed anti-nationalism and the question of whether or not to include her and her works in the identity of the Korean nation and finally to re-evaluate the contradictory situation and the dual attitude and resolve it.

**Keywords** : Im Sun-Deuk, “A Godmother”, Postcolonial, Resistance,  
Translation (임순득, “대모”, 탈식민, 저항, 번역)

Received: 5 April 2013 Reviewed: 5 May 2013 Accepted: 10 May 2013
---